지역 소식통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 정읍시, 현장 설명회 개최

정읍시는 2021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예비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는 축사의 사양관리와 환경관리 등에 ICT 기술을 접목해 생산비 절감과 축사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사업의 지침과 절차, 장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 축산농가의 사업 진행 관리 등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획됐다.

찾아가는 설명회를 희망하는 5인 이상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운영 기간(~12월 31일) 내 일정을 조율해 무료로 전문가가 해당 지역에 직접 방문하며, 설명회 참석 시 2021년도 본사업 선정에서 가산점(5점)을 부여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경로당 꼼지락 체조교실 부안군, 운영 재개 호응

부안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큰 호응을 받았던 '행복건강 꼼지락 체조교실' 운영을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행복건강 꼼지락 체조교실은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달래주고 신체건강 유지는 물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등을 위해 지난 2016년 64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5년째 시행한 사업이다.

주1회 강사 지원과 습득한 동작을 익히기 위한 주1회 자체운영, 꼼지락 체조 동영상 주3회, 사업 전·후 기초검사, 신체활동·영양·금연·절주교육, 영양실습, 꼼지락 체조 발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관내 250개소 경로당(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체조교실을 운영해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잠정중단 한 후 지난 10월 26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정읍에 둥지

내장산 문화광장 인근, 총 460억 들여 2025년 준공
일자리 창출·관광 유발효과 등 경제 활성화 기대

유진섭 정읍시장이 3일 정읍시청 다목적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연수원 설립 후보지 선정에 정읍시가 최종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읍시 내장산 문화광장 인근(정읍시 부전동 1017 일원)에 국민연금공단(NPS) 연수원이 둥지를 튼다.

유진섭 시장은 3일 정읍시청 다목적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연수원 설립 후보지 선정에 정읍시가 최종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부지는 유 시장이 직접 제안한 부지로 연수원 유치를 위해 부시장을 추진 단장으로 임명하고 연수원 유치를 위한 부서별 협업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왔다.

또, 국민연금공단 본부와 전북도,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연수원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연수원이 완공되면 7,500여명의 국민연금공단 직원과 가족이 연수원을 이용함으로써 지역 농축산물 소비와 일자리 창출, 건설경기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체류형 관광단지가 조성돼 정읍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유발효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 시장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전라북도 내 시군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연수원 건립 후보지 제안을 요청해 정읍시를 포함한 11개 시군의 후보지를 추천받았다.

이후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건립 후보지 검토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11개 시군 후보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정읍시의 후보지를 최종 부지로 확정했다.

최종 확정된 연수원 건립 대상 부지는 국민여가캠핑장과 내장산워터파크 등이 조성된 내장산 문화광장 인근에 소재한 부지로 내장산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KTX와 SRT, 고속버스 등 편리한 교통인프라와 차량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연수원(부지 6만1,616㎡/1만8,638평)은 총사업비 460억원을 들여 2021년 설계에 착수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시는 공유재산의 매각 승인 등 행정적 절차를 빠르게 완료해 국민연금공단의 연수원 건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연금공단 연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 개발 용역 보고

부안군은 3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부안군 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축산물 공동브랜드로 '풍요로운 자연의 맛 참풍부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물 공동브랜드는 지난 1월 추진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3~11월까지 8개월간 설문조사 2회, 네이밍 공모 1회, 보고회 7회를 거쳐 탄생했다.

공동브랜드는 풍요로운 자연에서 자라 고기의 참 맛이 으뜸인 부안의 웰빙 축산물을 형상화하고 자연친화적 생기 충만한 부안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품격과 신뢰감을 시각화해 만들어졌다. 특히 이번 용역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향후 직접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게 될 축종별 협회장과 축산물기업조합, 외식업체 및 관련 기업체 대표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돼 의미가 크다.

군은 상표출원서가 발급되면 이달부터 관내 주민들에게 친숙해지도록 홍보할 계획이며 상표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동브랜드 운영주체 결정, 품질기준 향상방안 연구, 참여농가 및 업체 기준 결정 등 브랜드 활용방안 협의 및 조례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경제 한의원장, '식초' 중요성 열강

고창식초문화대전 초청강연

'전국민의 건강주치의' 이경제 한의원장이 3일 오후 고창군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회 고창식초문화대전' 초청 강연에서 '식초'의 중요성에 대해 열강했다.

이경제 원장은 "식초는 B.C 5000년 전에 사용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인류역사와 함께해온 최초의 조미료이자 가장 오래된 발효식품 중 하나다"며 "밥상의 풍미(風味)를 배가할 뿐 아니라 병·의원이 부족한 시절에는 가정상비약 역할도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율곡 선생의 '격몽요결'에도 소염다초(小鹽多醋), 즉 '소금은 적게 먹고 식초는 많이 먹는 게 건강에 이롭다'고 기록돼 있고, 고려시대 한의서인 '향약구급방'에도 '약방마다 식초를 약으로 썼다'고 전한다.

특히 이경제 원장은 고창의 복분자 식초, 복분자 발사믹식초 등에 큰 관심을 보이며 "식초는 복분자의 비타민과 미네랄의 체내 흡수를 도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감탄했다.

이날 제2회 고창식초문화대전에선 '식초의 맛'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컨퍼런스도 열렸다.

참석자들은 "식초문화도시 선포 1년 만에 학계와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정부는 물론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성과가 고무적이다"며 "앞으로도 식초 소재 다양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신제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행사장 한쪽에선 국립농업과학원, 전북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의 식초 홍보관도 같이 운영돼 군민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맘때쯤이면 노곤해지는 혀, 텁텁해진 입맛 정도는 건강하면서도 새콤한 신맛을 보장해 줄 고창의 전통 식초를 만들어 보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며 "자연과 문화, 먹거리가 어우러진 식초문화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특화작물 지황 경쟁력 강화

재배기술개발 공동연구 추진

정읍시가 지역 대표 특화작물인 지황(地黃)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생산, 현장 실증을 통한 신속한 기술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황은 한방에서 경옥고와 십전대보탕, 생화탕 등 다양한 처방에 사용되는 주요 약용작물이다.

특히, 정읍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황 생산지로서 2015년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해 그 명성과 품질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국내산 한약재에 대한 소비 수요 증가로 전국 지황 재배면적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황 재배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연작을 하게 되면 뿌리썩음병 발생이 심하고 수량이 대폭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다.

더욱이 정읍은 오랜 기간 지황을 재배했기 때문에 처음 재배하는 토양(초작지)이 고갈되어 생산기반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정읍 지황 재배면적은 약 50ha로 전국 생산량의 50% 이상을 점유했으나, 현재 재배면적은 32ha 정도로 생산기반 감소가 뚜렷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는 전북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지황 안정생산과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논 이용 재배기술개발을 공동연구하고 있다.

지황은 뿌리 표피가 얇아서 습해에 약해 논 재배를 희피해 왔지만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춘 논 토양(사질토~사질양토)에서는 긴 장마에도 충분한 재배 가능성을 확인했다.

올해는 적합 품종선발과 뿌리썩음병 관련 미생물상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향후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보급되면 지황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지황 논 재배기술이 개발되면 답전윤환 체계 도입으로 논 이용 효율성 증대와 연작장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꾸준한 연구를 통해 안정생산기반 구축과 농가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